

내 삶의 큰 가르침 (상)

황용순 (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

어릴 때는 종교라고 하면 성당을 떠올리며 동경하기는 했지만, 종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은 없었다.

부모님께서는 명절과 생일 때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상 위에 경(經)을 한 권 올려 놓고 독경하곤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니 아마도 불교에 관한 경전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어떤 인연에서인지 부모님은 지금 교회에 다니시는데, 가족들이 모임 때면 서로가 상대방의 종교를 존중해 종교에 관한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다.

나는 학교 졸업 후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입원환자의 증대로 지금의 남편을 알게 돼 결혼했다. 하지만 십여 년쯤 지난 후 남편의 바람기가 일기 시작했다. 나는 배신감과 회의와 고통으로 절망했고,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었기에 이로 인해 나 또한 남편을 많이 힘들게 했다. 한 3년 정도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지내는 동안 이혼도 수 없이 생각했고 삶이 힘겨워 잠도 쉽게 이룰 수가 없었다.

더 이상 내겐 버틸 힘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 철학관도 가보았고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기도 했다. 그곳에선 남편이 도화실에 흡연실까지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앞으로도 몇 년은 더 지속될 것이라 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차마 이혼은 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나를 지탱해줄 그 무엇이 있을 까? 이런 고민 끝에 종교를 생각하게 되었다. 친정이 교회에 다니니 교회에 가볼까, 시댁은 천주교 영세를 다 받았으니 성당에 가 볼까 갈등을 했지만 그것도 내 맘대로 되질 않았다. 시아버님이 교회원으로 쓰러지신 뒤 증풍으로 3년 고생 끝에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시댁에서는 성당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분이 절에 다녀온다면서 우리 매장에 들어오셨다. 나는 그때만 해도 절이라고 하면 산속에나 있는 줄 알았지 도심포교당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절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있었다. 그날 저녁에 바로 그 절에 찾아 갔다. 절에는 비구니 스님이 머물고 계셨고 4시간가량 스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뭔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듯해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불교와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런 것을 하나씩 야단을 했다. 그때만 해도 남편은 불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스님은 이 문제로 남편과 부딪치지 말고 남편이 없는 틈을 이용해 절에 다녀가라고 일러주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빨 달린 소 두마리가 달려와 자신을 받아버리는 꿈을 꾸었고, 다음날 장독대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치게 됐다. 그 후 시어머니는 무속 집과 멀어지게 됐다. 지금 와서 보니 신중님께서 사뭇 기운을 막아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토록 부처님의 정법

남편의 외도 · 가족간 종교차이에 갈등 · 도심포교당 다니며 독경 · 정근 열심히 법성 스님이 쓴 책 읽고 삶의 용기 얻어

그 당시에는 시어머니께서 1년에 2~3차례 정도 무속집을 찾아 다녔다. 마음속으로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가실 때는 돈을 챙겨 드셨다. 정초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지 삼아 찾아가시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나는 계속해서 절에 나가면서 스님과 대화를 많이 했고 조언해주시는 대로 하기 시작했다.

스님은 나에게 <지장경>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경을 읽고 지장보살님을 염하라고 일러주셨고, 매일 독경과 정근을 꾸준히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내가 절에 다니며 불교 공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화를 내며 어머니가 계시는데 무엇 하러 그

앞에선 그 어떤 사뭇 기운도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하루는 스님이 책을 한 권 주시면서 읽어 보라 하셨다. (마음 한 번 풀리니 크락이 예 있구나>라는 주지 법성 스님이 쓰신 책이었다.

법성 스님의 어머니는 독실한 불자였지만, 스님은 당시 이화여전에 다니며 교회에 나갔고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무척 애를 썼다고 한다. 스님은 변호사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곧 큰 병을 앓게 돼 생사의 고비를 넘겼다고 한다. 온갖 병원을 전전했고 하나님에게도 매달려 보았지만 병이 낫지 않자 친정어머니는 큰스님과 상의 끝에 스



그림 · 문병성

님을 절에 데려갔다. 꿈을 잘 가누지도 못하는 스님을 지게에 지고 절에 모셔갔더니 큰스님은 3일 기도를 시켰다고 한다. 스님은 잘 걸지도 못하는 상태였지만 거의 기다시피 하루 두 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3일 기도를 마치고 나니 꿈에 단아한 여자가 나타나서 감로를 주었다고 한다. 그 물을 받아 마시고 난 후 화장실에서 온갖 독소를 다 쏟아버리자 몸은 기적같이 다 나아, 그 뒤로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는 내용이였다.

아! 불교가 이런 것인가 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부터 더욱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스님이 겪은 힘든 고통을 생각하니 무엇인들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스님은 나에게 천도재를 한 번 해보라고 해서 <지장경>을 읽고 100독, 200독, 300독을 읽고 계속 천도를 했다.

마지막 300독을 하고는 천도재를 올리는 날 절 마당에서 여러 보살님들과 설거지를 하는 꿈을 꾸었다. 그때 절문이 삐걱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사람은 없고 문소리만 들려서 가보았더니 대문 바로 안쪽에 누런 큰 개가 한 마리 들어와 옆드려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꿈에서도 나는 손을 저으며 "너는 여기 오면 안돼 어서 가라" 하면서 손을 흔들었다.

그랬더니 큰 개는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슬금슬금 절문 밖을 나갔다. 개를 따라 나가보니 저 위의 절에서 네 발 달린 온갖 짐승들이 한 무리를 지어 절에서 빠져나

가는 것이었다.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꿈에서 깨어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동안 시어머니다 무속집에 다니며 온갖 잡귀들을 다 불러들여 집안이 시끄러웠는데, 이제야 그 잡귀들이 집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우연인지는 몰라도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우리 가정은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 담이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적인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4쪽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정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51
- 인터넷 접수: snoopy@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이시린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중앙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합, 선착순 8명)
-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수행건강학과

수강생 모집 안내

1. 모집기간 : 수시모집 (지역 교육원에서 접수)
2. 교육과목
 - 법화경(교양필수)
 - 황제내경(교양필수)
 - 운동요법 · 주나요법
 - 자연요법 · 식이요법
 - 교정요법 · 침구요법
3. 교육기간 : 4년(8학기) 수료
4. 교육일시
 - 대구 : 화요일 오후 2시 - 4시
 - 부산 : 목요일 오후 2시 - 4시
5. 교육장소
 - 대구 : 동대구역 옆 동대구빌딩3층
 - 부산 : 부산역 옆 삼진빌딩2층
6. 기타특전
 - 수료증서 수여
 - 중국 중의대 자격증 취득(검정후)
 - 대체의학요법사 자격증 취득(검정후)
 - 평생대학원 진학자격부여
7. 문의전화 : (053)952-8711, 017-501-8711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4동 276-25번지



학장 최경명

교육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韓國平生大學(院)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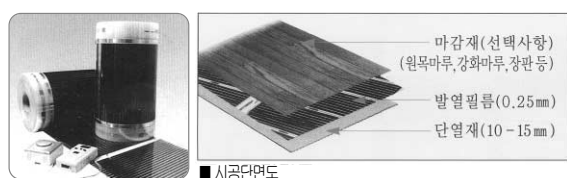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고 있는가?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고 있는가? 기공보일러를 생각하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웰빙난방 기준 난방비의 80% 절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시공경험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설치하면 좋은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공영간 바닥과 벽 시공 가능

- 본사 : 유성바이오텍(주)
- 제품 : 미국칼로리규사 직수입품입니다.

FILM HEATING 대체에너지(주) 천안·이산총판(시공전문업체)

041)545-5593, 010-8120-3592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산속조청**
- 산속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산속조청은 산천 조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교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산속조청은 한의사 이기용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 이사님의 자문을 받습니다.
- 산속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정성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웃어오르지 않는 **산속참옥조청** 1.2kg

이월, 냉증, 위장장애, 피로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음, 혈양, 원기회복등에 기여

산속청미래조청 1.2kg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양 매병에 탁월한 기여

산속기청량조청(품절) 1.2kg

상기, 기혈조절, 손발냉증, 보혈, 혈액순환에 기여

산속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가래,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054)372-3166

●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산속조청원**

영험도량



퇴마란

현 시대는 남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바빠 뛰어도 만족을 못하는 이기주의의 현상으로 말법시대입니다. 자업자득 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짓은 복이 소멸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때 들어나는 것은 전생업마, 현생죄마, 죽은사람마, 동물마, 미생물마, 기타 등등이 마음에 장애가 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력이 있는자가 불보살님 힘을 얻어 마를 물리치는 것을 퇴마라 합니다.

영가	병의 현상(이유)
조상영가	집착, 미련, 그리움, 애착 때문에
낙태(유산, 자연)	무서워, 같았이 없어요
타령가	여기저기 다니며 놀고 싶어 왔어요
미물영가	너무 고통스러워 왔어요

아후검색창에 **애원사** 라고 써주세요

해원사 초하루, 18일 지장재일 신중참회기도
031)736-3734 · 732-3790